

##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봉(결합)과 사회사업의 과제

엄 명 용\*

### I. 서론

이산 가족 1세대<sup>1)</sup>가 고령화되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이산가족 문제해결은 인도적 견지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후 지난 8월 15일에 분단 이후 두 번째의 남북이산 가족 상봉의 결실을 이루었다. 그간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은 이러한 공식적인 남북한 당국간의 이산가족 상봉 노력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실현을 위해 제3국인 중국 거주 자원을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제2차 남북이산가족의 수가 양쪽에서 각각 100명씩 합계 200명에 그쳤고 그간 민간 경로를 통한 이산가족 교류 결과 제3국 상봉이 89년 시작 이래 2000년 1월까지 468건에 그치고 있어(통일부, 2000), 이산의 아픔을 달래며 상봉을 기다리고 있는 일천만 이산가족의<sup>2)</sup> 염원을 달래기에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산가족의 상봉 및 결합에 따른 문제들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표면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1차 이산 가족 상봉<sup>3)</sup>과 지난 8월 15일의 제2차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제 3차 및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이산가족 중 1953. 7. 27(휴전) 이전, 북한지역에서 월남한 자와 남한지역에서 남북(월북)된 자의 당시 가족(통일부, 2000).
- 2) 실제 현재 남한거주 이산가족은 이산 2, 3세대를 포함하여 약 767만명으로 추정된다(통일부, 1999). 이 중 이산 1세대는 123만명, 60세이상 고령이산가족은 약 69만명.
- 3) 제1차 이산 가족 상봉은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남북 각각 50명의 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했지만 정작 가족을 만난 사람은 남측 35명, 북측 30명에 불과했다.

제 4차 이산가족 상봉이 2000년 11월 24일, 12월 5-7일에 각각 2박 3일 일정으로 100명씩 두 차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실시될 예정에 있고 이산가족의 생사확인<sup>4)</sup> 서신교환<sup>5)</sup> 면회소의 설치 및 운영 등이<sup>6)</sup> 점진적으로 확산 및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이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재결합 문제는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의 일을 넘어 전체 사회가 함께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대비를 체계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어떤 사회현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것을 예방하고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치료적 개입 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사업의 과제라고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재결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탈북자 가족의 남한 내 가족·친척들과의 상봉·재결합에서 발생한 일단의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예방 및 개입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상봉·결합 문제는 살아있는 이산 1세대와 관련해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산 가족 2·3세대들에게 이산가족 재결합의 노력을 승계하고 나아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이산가족이 영구히 재결합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차원에서 면밀한 준비와 시행을 요하는 문제라고 볼 때, 우리 사회복지전문직이 이산가족의 상봉·재결합과 관련한 우리의 과제를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는 것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다. 법학 부분에서는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 시 발생할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연구들을 수행해 왔고 또 진행중이다.<sup>7)</sup> 또한, 사회학과 가족학 부분에서는 이미 북한 가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벌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산 가족의 상봉·결합문제는 이상적으로 정치, 이념, 사상, 제도를 초월하여 가장 인도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입각하여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이산 가족의 상봉·결합 문제는 남북간의 이데올로기, 정치 상황, 경제상황 등과 맞물려 추진되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된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계 입장에서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 및 결합 그리고 남북한 사회의 민족적 통합을 위해

4) 10월과 11월 시범적으로 각각 100명씩 이산가족의 명단을 교환하고 이후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양측 적십자사에 접수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명단 전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2000. 9. 23. 제2차 남북 적십자회담 결과).

5) 11월 중 남북 각각 생존과 주소가 확인된 이산 가족 300명을 대상으로 서신교환을 실시하고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기로 함(제 2차 적십자회담 결과).

6) 이 문제는 12월에 열릴 제3차 적십자회담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7)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논문으로는 김명기(1993), “남북 이산가족의 재결합 - 법적 의무를 중심으로”; 신영호(1994),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문제”; 김선이(1994), “분단국가의 인적 교류정책과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법적 문제의 소고”; 소재선(1996),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제문제”; 박동헌(1999), “이산가족 재결합시의 가족법적 문제: 남북한 가족법과 관련하여” 등을 참고할 것.

어떤 준비를, 누구와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해 가면서 어떻게 언제 추진해나가야 되는지를 모색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세계 역사상 이산 가족이 된 사연이 우리와 같은 경우가 이 세계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우리와 같은 절차와 형태로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진 선례가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복지계가 어떤 역할을 준비하고 수행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시대적, 주변적 상황을 감안하면서 본 발표자는 먼저 남북 이산 가족 상봉·재결합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이산가족 상봉·결합의 목적과 목표들을 점검해 본 후 그 목적들을 성취해 나가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걸림돌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사회사업적 과제를 도출해 볼 것이다.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재결합 문제와 그 대책 또는 해결 방안은 상봉과 재결합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발표는 이산가족의 상봉은 남북 양쪽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하되 재결합은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남한 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발하였다.<sup>8)</sup>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관련 문헌 자료, 최근 상봉 가족에 관한 신문기사,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북한 사회 관련 정보들을 본 발표의 초점에 맞게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정된 준비 시간으로 인해 상봉한 이산 가족이나 아직 상봉하지 못한 이산 가족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욕구와 문제점을 들어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발표는 실증적인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둔 사실의 제시보다는 이산 가족의 상봉·결합에 따라 사회복지실천 측면에서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본 발표에서 제기된 사항 외에 어떤 과제들이 더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 모두의 생각과 대안을 짜내는 (brainstorming) 중간 매체로서의 역할에 만족하고자 한다.

## II.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이해

남북이산가족의 상봉과 관련하여 우리의 과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현상에 대한 깊이 있

8) 1998년 동화연구소에 실시한 551명의 이산가족 대상 설문조사에서 “상호방문, 거주지선택 자유 허용, 신변안전 보장 등에 남북 당국이 합의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재결합을 이루어 살겠다’ 라는 답에 78명의 응답자가 답했는데 그 중 북한에 가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사람은 2명이었다.

는 이해가 필요하다.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의 현상을 보다 깊이 있고 냉철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산 가족상봉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에 따른 단기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확인된 목적 및 목표에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예상되며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사회사업적 개입이 필요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사회사업적 과제라 함은 사회복지 정책적인 면에서의 노력보다는 사회복지의 직접적 실천과 관련된 행동에 국한된다.

### 1.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목적

남북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고자하는 목적은 이산 가족의 재회 동기의 밑바탕에 혈육의 정이 짙게 깔려 있는 한 표면적으로는 자명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산가족 상봉의 가장 큰 목적은 아마도 꿈에도 잊지 못하고 묵놓아 기다리던 혈육을 만나 열싸 앓고 한없는 혈육의 정을 나누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혈육이 만나 부둥켜안고 통곡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혈육의 정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그것으로 다 인가? 혈육간 감정 표출의 시간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것이며 또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주로 드러나는 감정적인 현상에 가리어져 이산 가족의 상봉·재결합과 관련된 보다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이산가족 상봉과 관계된 문제의 대부분이 감정과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의 과제는 그 가족들의 상봉 이전, 상봉 중, 상봉 이후에 발생하는 감정의 처리와 해소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감정을 주로 다루는 분야는 우리 사회사업 분야가 그 영역의 독자성을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오히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분야가 이 영역에서 더욱 강점을 소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 사회사업 분야에서는 이산 가족의 상봉의 전과정에서 표출되는 감정상의 문제는 물론 이러한 감정과 관련된 문제 외에 어떤 사회사업적 이슈가 존재할 것인가를 냉정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서로 만나고자하는가? 가족과 헤어져 단신 월남하여 살아온 소설가 이호철씨는 지난 50년간 만나지 못했던 여동생을 북한에서 만난 서너 시간 동안 통곡과 울음 대신 백짓장처럼 차분해져서 담담하고 범연스럽게 시종 둘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고 한다(동아 닷 컴, 2000b. 8. 20). 서울로 돌아와 텔레비전 화면으로 수다한 분들의 아우성과도 같은 호곡들을 접하면서 이호철씨 자신은 새삼 조금 기이하게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꼭 저 지경으로까지 온 강산이 들썩하도록 울음바다가 되어야만 하였을까? (중략) 한풀이 한 마당은 마땅히 있어야 했을 터이지만 7000만 누구나 동참했던 이번 이 울음만은 일과성으로 만 지날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우리 모두 깊이깊이 지속적으로 육화(肉化)시키는 쪽으로도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중략) 이번 50년만의 첫 ‘만남’ 에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차분하게 넘겼던 우리 남매의 그것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걸 조용히 혼자 곱씹게 된다.”<sup>9)</sup>

가족 상봉의 감정에 마냥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차분한 이성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화연구소의 이산 가족 여론조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화연구소(1998)에서 1998년 5월에 실시한 이산가족 대상 여론조사에서, ‘상호방문, 거주지선택 자유 허용, 신변안전 보장 등에 남북 당국이 합의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551명 중 ‘만남 후 다시 헤어져 살겠다’가 289명(52.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재결합을 이루어 살겠다’는 것은 78명(14.2%), 아직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경우가 128명(23.2%), ‘소식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결합하지 않겠다’가 53명(9.6%)이었다. 대체로 정리하면 이산 가족 응답자 551명중 확고한 재결합 의지를 보인 사람은 78명(14.2%)에 그치고 나머지 473명(85.8%)은 적어도 당분간은 재결합하지 않겠다 의견을 보였다.<sup>10)</sup> 어떤 이유로 인해 많은 가족이 상봉 후 재 이별의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은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의 최종적 목적이 모두 재결합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 자체에는 많은 복잡한 감정과 사연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산 가족 상봉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와 이산의 과정과 상황은 다를지만, 나치의 대학살로 인해 오랫동안 헤어져서 세계 도처에서 흩어져 살아오다가 이스라엘에서 가족(친척)들을 상봉한 감격을 경험한 후 라퀘르(Laqueur, 1994)가 남긴 말은 우리 이산가족 상봉의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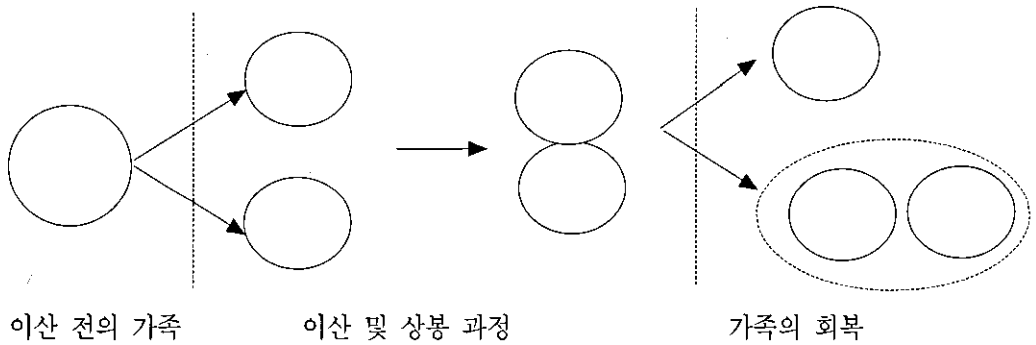
“흩어짐 이후 우리 혈족들이 각자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정리해보는 것은 좋았다.

9) 「소설가 이호철의 방북소감」 첫 만남 눈물 안흘린 까닭은. (동아 닷 컴, 2000b. 8. 20)

10) 응답자의 이산 가족 상황에 따라 응답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즉, 남북간에 헤어져 있는 가족이 부모-자녀간인가, 형제 자매간인가, 부부간인가, 부부인 경우에도 재혼을 하지 않고 기다린 경우인가, 한 쪽 또는 양쪽 모두 재혼한 경우인가에 따라서 자유로운 결합이 허용되었을 때 재결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가족 상황 양상이 나와 있지 않으나 실제로 이산 가족의 숫자에는 이러한 다양한 가족 관계 양상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551명에 대한 응답이 어느 정도는 전체 이산가족의 반응을 대표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혈족들간의 상봉의 진정한 의미는 '회복(recovery)' 또는 '정상화(normalization)'와 같은 용어에 의해서만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p. 46)

우리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봉 및 재결합의 궁극적인 목적도 역시 가족의 회복 또는 가족의 정상화에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가족의 정상화나 회복이 꼭 재결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을 통해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비록 이산가족들이 상봉 후 재결합하지 않고 각자의 생활 근거지에서 생활해 간다하더라도 가족의 회복이나 가족의 정상화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사업의 과제는 바로 이 남북이산가족의 가족회복 또는 가족정상화 과정에서 찾아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각 원들은 생활단위의 가족을 의미하고 가족회복 단계에서 단일 원은 이산가족이 재결합하여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점선 원으로 둘러싸인 두 개의 원은 따로 생활하지만 가족의 정상성을 회복한 가족을 의미한다.



<그림 1> 이산가족의 상봉과 가족 회복의 과정

## 2. 이산가족 상봉의 목표

남북이산가족들이 그들 본래 가족의 회복 또는 가족 정상화라는 목적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있고 이 상봉의 과정에는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표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리라 생각된다. 즉,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은 상봉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산가족 상봉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이 확인되고 추구되는 자리이며 사건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틀 안에서 이산 가족 상봉의 목표들을 그간의 관련 문헌과 상봉

이산가족들의 증언, 그리고 본 발표자와 탈북자간의 개인적 인터뷰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발표자는 이러한 목표들을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된 현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상호 중복되거나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현상을 편의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 1) 한의 삭임 또는 그리움의 해소

이것은 주로 가족과의 상봉, 생사확인, 그리고 사망이 확인된 경우 남한에서의 고별례로서의 장례식, 뒤이은 합당한 제사,<sup>11)</sup> 가능하다면 고인 묘소의 참배 등을 통해 그간 간직해 왔던 그리움과 혈육으로서의 정을 나누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것들은, ‘죽기 전에 한번만이라도 만나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알아도 여한이 없겠다,’ 제사라도 떳떳하게 지내고 살았으면 좋겠다’ 등의 말들을 통해 드러나는 이산가족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절 때 함께 모여 지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 예로, 오빠(68)를 만난 K 방송국 아나운서 이OO씨(53, 여)는, “오빠가 북에서 성공해 잘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명절이 다가오니 ‘함께 제사도 못지내나 ...’하는 아쉬움으로 가슴이 더욱 아프다”(동아 닷 컴, 2000c)고 고백하였다. 북에서 50대 초반의 아들을 만나고 온 유OO씨(73, 여)는 “평생 소원이 이뤄져 두 눈 감고 죽을 수 있겠다” (2000d. 8. 18)고 하였다. 또한 세상 살 때 헤어진 큰 딸을 만난 김OO씨(78, 여)는 “평생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다”(동아 닷 컴, 2000d)고 하면서도 나이에 비해 거친 손으로 자신을 조금이라도 깊게 안으려는 딸이 손길이 맴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남북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웅어리진 한과 그리움을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엿볼 수 있다.

### 2)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 보상받고 싶은 욕구

가족 중 한 사람에 의해 이산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남아있던 가족들이 남한 또는 북한에서 각종의 불이익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경우 자신의 인생을 보상받고자하는 욕구나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북자 또는 북송교포인 가족 또는 친척을 두고 있는 남한 가족의 경우나 월남자 가족, 친척을 둔 북한 가족 등이 상봉할 경우 월북 또는 월남으로 인해 남과 북의 사회에

11) 사망여부를 몰랐을 경우에는 사망했다고 간주하고 지내던 제사를 사망 확인 후에는 훌가분한 마음에서 당당하게 지낸다는 의미임.

서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 생활한 가족은 그 고통스런 인생에 대해 보상받고자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다(임순희, 1998). 또한, 남북간에 부부가 헤어진 후 어느 한 쪽은 재혼을 하고 다른 한 쪽은 재혼을 하지 않고 살아온 경우 재혼하지 않은 쪽에서는 재혼한 자에 대해 원망과 서운한 마음을 갖는 동시에 혼자 살아온 과정에서 경험한 온갖 고통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이별의 사연 확인

남북가족의 이산이 피난 과정 중 알 수 없는 이유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생했을 경우, 그 이유나 사정이 50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채 잠복해있는 것이다. 전쟁이 막 발발한 시점에서 잠깐 일을 보러 갔다가 전쟁 상황에 막혀 불가피하게 헤어져 이산 가족이 된 경우도 남아있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라진 어느 한 가족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이산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아내, 딸(당시 5세), 아들(당시 1세)을 둔 대학생 가장으로서 대학교를 다니던 중 6·25 전쟁으로 인해 행방불명되었다가 70대 후반이 되어서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일원으로 남한의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최OO씨(77)는 1959년에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를 찾으려고 하였다(동아 닷 컴, 2000g). 이러한 경우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한마디 연락도 없이 '잉꼬 부부'로 소문날 만큼 사랑했던 어머니와 자신들을 두고 북으로 갔는가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할 것이다.

### 4) 힘들게 살아온 상대 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이것은 남북이산가족 상봉과정에서 남으로 내려와 가족을 만나는 사람들보다는 북으로 올라가 가족을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북에서 만난 가족들의 초라하고 병든 모습, 굶주린 모습 등 북한 가족 생활의 실상을 목격한 후 남쪽 가족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지역이 평양에서 점차 군 단위 이하 지역 쪽으로 확대 이동될수록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탈북주민 접촉 결과 평양에서 멀어질수록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이 극도로 어렵고 윤리나 기본질서도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엄명용, 1999).

109세 노모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북에서 조카 2명만 만나고 돌아온 장OO씨(72, 여)는 “너무 못사는 게 가슴이 아파 ... . 남에서 가족들이 온다고 남자들은 양복을 한 벌씩, 여자



들도 새 한복을 입고 나왔지만 보면 모르나... . 뭐든 다 주고 오고 싶었는데 ...”(동아 닷 컴, 2000d) 라며 북의 가족을 돕고 싶지만 충분히 돕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출하였다. 세살 때 헤어진 딸과 세 동생을 만나고 돌아온 김OO씨(72, 여)도 “딸애한테 내 입던 옷까지 벗어 주고 왔어. 서울에서 듣던 것보다 사는 형편이 더 안 좋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픈데 추석이라고 뭐 하나 도와줄 수도 없고. 말하는데도 왜 그리 남 눈치를 보던지 .... (중략) 동생들 얼굴이 나보다 더 늙어 보여 가슴 한 쪽에 뭐가 걸린 듯 늘 답답하다”(동아 닷 컴, 2000c)고 하여 비슷한 심경을 밝혔다. 형제들을 만나고 돌아온 이OO씨(72, 남)도 시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진 한 장도 들고 나오지 못한 가족들에 대해 안타까움과 돕고 싶은 마음을 내보였다(동아 닷 컴, 2000d).

### 5) 남북한 이산가족간의 이질감 극복을 통한 동질감 회복

남북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부분에서 이질감이 존재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이질감은 여러 방면에서 경험될 수 있는데 주로 북한가족의 정치적 발언, 경제 체제의 상이성, 문화적 차이, 언어의 차이, 그 밖의 독특한 행동 등에서 경험되고 있다.

#### ① 정치적 정체성의 문제

다른 정치적 이념 속에 살아온 남북의 가족은 상호 다른 정치적 정체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원치 않던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군주적 영향하에서 살아 왔다. '김일성 장군님의 은혜로 상봉이 이뤄졌고 김일성 장군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생활해 왔다'고 한 북측 방문 가족의 예(동아 닷 컴, 2000a)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아내와 딸을 만나러 간 아버지 이OO씨(75세)에게 북측 딸(55)은 “우리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살아왔다. 아버지가 장군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동아 닷 컴, 2000a) 말했다. 이러한 정치적 정체성으로 인해 북한 가족들은 남한의 가족들을 잘 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 반면에 남한의 가족들은 지금까지 이념적, 사상적으로 비교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6·25를 비롯해 그 후 발생한 갖가지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해 반감을 갖고 생활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남한 가족은 이념적 우월감을 갖고 북한의 가족, 친척을 대할 수 있다.

#### ②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질성

경제적 측면에서 남한에는 완전 사적 소유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는 사적 소유와

공동소유 의식이 혼재하고 있다. 북한가족은 사회주의적 배분과 배급 할당에 익숙해 있으면서도 94년 이후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사적 소유개념을 맞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부를 획득하기 위해 개인적 노력에 의지해온 남한의 가족들은 북한의 가족이 기본적인 경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기보다는 사회나 집단에 의지하려 하는 강한 성향을 보일 때 이질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탈북자는 남한 사회로 목숨걸고 넘어온 사람(탈북자)에게 정부가 30평 정도의 아파트는 주어야 하지 않느냐며 지방자치단체와의 면담을 끈질기게 요구한 적이 있었다(엄명용, 1999). 경제 수준에 있어 남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여 우월감을 표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국가가 자신들에게 제공해준 주택, 교육 서비스 등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 사람들이 우월감을 드러낼 경우 북한 사람들이 반감 및 적대감을 나타낼 수도 있다.

### ③ 문화적 차이

북한의 문화는 대부분이 정치혁명과 김일성·김정일 부자 찬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개발하고 지켜온 문화에 대해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다. 북한의 예술 공연단의 수준에서 보여지듯 그들의 문화활동은 영역과 깊이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최근의 식량난으로 인해 음식 문화가 위협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자신들이 유지 발전시켜온 음식에 대해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한 탈북자는 북한식의 순대를 만들어 교회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대접했는데 교인중 한 사람이 “이것도 사람이 먹는 것이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민족의 뉘를 잃을 정도의 분노를 느끼고, 그 사람을 죽여버릴까 하고도 생각했다고 한다(엄명용, 1999). 남한 가족이 북한 가족에게 무조건적 문화적 우월감을 드러낸다면 북한에는 예술 및 음식 문화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이 여길 경우 대단한 갈등이 존재할 것이다.

### ④ 언어의 차이

남한 출신 북한가족이나 북한이 고향인 가족을 막론하고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서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영어로 된 간판과 한글로 표기한 영어나 기타 외국어 표현들이다. 또한, 지난 50년간 각자 다른 언어 생활의 결과 북한 사람은 남한의 두음 법칙에 거부감을 보이고, 상용화된 한자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밖에 남한인의 우회적이고 완곡한 간접 어법을 잘 이해하

지 못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 탈북자들의 경우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번정거릴 경우 열등감 내지 모멸감을 느껴 화를 폭발하곤 한다. 이번 남한 방문단들의 일부는 “남한에서 쓰는 조선말에는 외래어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옷차림까지도 ‘잡탕’이다.” “캔에는 비루(맥주)나 적당하지 수정과나 식혜를 담아서야...”(동아 닷 컴, 2000e) 등의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는 남한 언어와 생활 방식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배어 있다. 반면에 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소박하고 투박한 어투에 거부감보다는 신기함을 보이면서 따라하는 등의 신기함을 보이는 것 같다.

### ⑤ 행동 및 일반적 사고

남한 사람은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행동 양식을 갖고 있다(임순희, 1998). 또한, 어느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남한 사람은 몹시 개인주의적이며 실리중심의 행동양식을 갖고 있다. 반면에, 북한 사람들은 장기간 유일독재의 감시·통제 체제하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는 집단주의적이고 단순하며 경직된 사고 방식을 갖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피해의식과 불신이 강한 편이다. 개인적인 면에서 북한 사람은 소박하고 인정이 많으며 자존심이 매우 강한 편이다.<sup>12)</sup> 따라서, 상봉·재결합 시 북한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남한의 가족, 친척들에게 자신들의 사고와 태도를 개방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임순희, 1998). 이에 더하여 남한 가족이 만일 북한을 전반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할 경우 이질감은 확대될 것이다.

## III.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문제와 사회사업의 과제

### 1. 상봉 후유증(감정적 측면)

짧은 만남으로 인해 50-55여 년간 쌓였던 한이나 그리움이 단번에 해소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많은 이산 가족들은 가족과의 상봉 후 한을 풀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인가를 채우지 못하는 허탈감과 반세기만에 만나 다시 이별을 해야하는 안타까움에 괴로워했다고 한다(동아 닷 컴,

12) 남한 거주 한 탈북자는 자신의 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역까지 배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며, 필자가 인터뷰를 위해 역앞에서 전화했을 때 역으로 마중 나오겠다고 했다.

2000d). 가족을 만나기 전의 그리움은 오히려 회한과 아쉬움으로 변해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지척에 두고도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산가족들을 위한 사회사업적 측면에서의 활동으로는 상담활동이 있을 수 있다. 애타게 원했던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중화시키기 위해 지나친 기대를 줄이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성급함을 버리고 차근차근 가족의 정상화를 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이산가족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산가족들이 현실적 기대를 갖고 현실적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실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친척 상봉을 통해 애타게 그리던 부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게된 가족은 지금껏 제사를 지낼 수도 안 지낼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를 털고 마음으로부터의 이별식 또는 고별식으로서의 못 다한 장례를 뒤늦게 치르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들을 위해서는 사회사업적 측면에서 못 다한 장례식 치러주기나 고별식, 또는 이별식을 함께 준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이산가족 상봉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와 유사한 심리적 증세를 보이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도움을 주거나, 집단 치료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상봉 후 재결합 사이에 상호적응 과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도 사회복지사가 담당해야할 부분이다. 특히, 부부의 재결합을 추진할 경우 이산 후 형성된 가정의 기존 질서와 평화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족 상호간 이해와 신뢰에 바탕을 두고 가족 재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매개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2. 힘들게 살아온 인생에 대한 보상

월북한 가족으로부터 보상을 받고자하는 욕구를 가진 남한 내 가족은 북의 가족이 형편없이 살고 있는 것이 편함에도 불구하고 말끝마다 김정일 장군님의 은덕으로 잘 살고 있다거나 북한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들에게서 실망과 야속함을 느낄 수 있다. 나가서, 원망의 감정이 표출될 수도 있다. 이 때 자신을 방어하고자하는 감정이 북쪽 가정에서 일어나다 보면 남북 가족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임순희, 1998).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지나친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적당한 정도의 감정이 안전하게 분출될 수 있는 통로를 해당 가족에게 마련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들을 버리고 월남한 가족으로 인해

반당분자 또는 반혁명분자로 낙인 찍혀 고통스럽게 살아온 북한 가족에게는 남한 내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유형, 무형의 보상이 주어지도록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 내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자원 발굴 및 활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한에서 어려운 생활 형편 하에 있는 사람들이 북의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경제적 지원 욕구 또는 경제적 지원의 압박감을 해결해 주기 적십자사와 연계하여 금품지원사업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 3. 이별 사연 확인

이산 당사자 가족의 어느 한 쪽이 가족 이산의 사연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을 경우, 그리고 그 오해가 명확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 가족의 상봉은 가족의 회복을 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상적일 수 있다. 가족간 상봉이 가족의 회복을 향해 나가는 의미 있는 단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산의 사연과 동기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가족이 이 문제를 꺼내기를 두려워 할 경우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이별의 사연이 명확하게 드러나 이산 가족 양측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살아있는 이산 1세대간에는 이 문제가 남북 이산가족 양측의 당사자간 만남에 의해 쉽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어느 한 측, 또는 양측의 이산 1세대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 그 자녀나 주변 친척이나 이웃들을 통해 이산의 계기, 동기, 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적십자사의 활동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이별 사연 확인의 필요성, 이별 사연 확인 작업, 이별 사연 확인 과정 등에 대해서 사회복지실천 분야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주장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4. 남북한 이질감의 경험과 그 해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 이산가족은 한 핏줄이라는 동질감 속에서 혈육의 정으로 만났지만 만나면서 곧 이질감을 경험하였다. 엄연히 존재하는 남북 가족간의 이질감은 남북 가족간에 넘어야 할 벽이 많이 존재함을 실감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 벽이 '핏줄'이라는 하나의 동일 요소에 의해 모두 녹아질 것이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존재하는 남북이산 가족간의 이질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남북간에 이러한 이질감이 건설적으로 소화되지 못한다면 남북 가족 상봉의 의

미는 퇴색되고 나아가 가족의 통합, 가족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질감의 극복은 남북가족이 서로 자주 접촉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으나 악화될 소지도 있다. 상대방과의 차이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비해 우위에 있는 듯한 발언이나 암시를 했을 때 남북 양 가족간 감정이 상하고 충돌도 있을 수 있다. 남북 양 가족간 있는 그대로의 다른 상태를 인정하고 귀중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 8월15일 코엑스 상봉장에서 북에서 온 형남에게 이OO씨가, “북한은 굶주린다면서요”(동아 닷 컴, 2000e) 라고 물었다가 오히려 다른 형제들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성숙된 의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 남한 가족이 먼저 북의 경제, 문화 및 사회 전반의 현상을 알고 이해하며 인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사회사업적 과제로서 이산 가족 상봉을 앞둔 가족들을 대상으로 만남 전의 준비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첫 상봉, 그리고 이후 지속되는 상봉에서 양쪽의 이산 가족들이 어떤 형태로 교류하느냐가 향후 가족회복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남북이산가족간에 보다 긍정, 수용, 이해에 바탕을 둔 상봉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남한의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계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이 정착된다면 향후 남북간의 사회적 통합 노력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계가 기여할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통일 독일의 경우 영토와 체제는 통일되었어도 아직까지 ‘사람의 통일’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50여 년간 이질화되어온 양쪽의 사람들이 다시 동질성을 회복하는데는 이질화되는 데 걸린 시간만큼이나 긴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남북이산 가족의 상봉, 재결합, 그리고 통일된 후에도 진정한 ‘사람의 통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 남한에 정착한 한 탈북자는 그가 갖고 있는 이질적인 요소로 인해 자신의 가족이 지금까지 남한 생활에서 겪은 차별, 멸시, 모욕 등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이 된다고 해도 이런 상태대로 계속 간다면 곧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갈라질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엄명용, 1999). 남북이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사업의 기본적 가치인 상이함의 인정, 수용(acceptance), 이해(understanding)의 실천 모토인 ‘클라이언트가 지금 있는 그 곳에서 출발하라(Start where the client is)’는 것의 실천이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 과정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상봉 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하여 가족 재결합을 이루려는 북한 이산 가족에 대해서도 사회사업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들 가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계가 중심이 되어 단계적으로 남한

사회에 대한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주체적 경제 생활 방식의 교육, 남한 사회에 대해 잘못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질감의 극복을 통한 동질감 회복을 위해 위에서 할 수 있는 일 이외에 사회사업계에서는 남북한 가족의 동질적인 요소와 이질적인 요소들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연구 활동도 벌여야 할 것이다. 남북 가족간에 동질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만을 강조하고 이질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를 부정하거나 덮어버리면 남북이산 가족간 거리를 좁히는 데 곧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박순성(2000)도 북한과 북한사람의 부정적인 면도 확인해야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이질감과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했다(재인용, 동아닷컴 2000f).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정부와 언론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남북이산 가족의 상봉 후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과 북한 사람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려고 노력해 왔고, 언론은 이산가족 상봉의 눈물나는 장면만을 비추면서 동질적인 요소인 혈육의 정만을 강조하다보니 이산가족간에 존재하는 현실적 차이에 관한 냉정한 분석기사나 남북간 상봉, 재결합,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해결하고 넘어 가야할 것을 집어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했다. 남한에서 진행된 북한과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왜곡을 청산한다는 명분 하에 또 다른 왜곡을 낳아서 곤란할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법률학 및 사회학 쪽에서는 이미 이질화된 북한 사회의 객관적 현상 규명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도 남북이산가족의 결합, 나아가 통일 후 가족 및 사회의 통합을 대비한 복지체계는 물론 실천분야를 탐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 IV. 맺음말

가족이 헤어진 후 양분되어 각자 나름대로 발전, 형성된 가족 체계들은 마치 하나의 세포가 세포분열을 거쳐 분리된 후 각자 다른 독립된 세포를 만들어 가듯 가족 분열 후 서로 다른 환경 하에서 각각 다른 가족 체계를 이루었다. 헤어져 형성된 양 가족 체계 사이에는 세포물질이 공유된 것과 같은 공통의 특질들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동질적인 요소를 가졌던 이산 가족 체계는 너무나도 상이한 바깥 세계와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거치는 동안 변화하여 오늘날과 같은 이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산가족의 상봉, 나아가 통일 전 또는 후의 가

족 재결합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남북 가족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변화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크게 볼 때 남한의 가족 체계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민주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 생존해 왔고 북한의 가족 체계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혁명과 전쟁을 무기로 한 유일독재체제 아래서 생존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냉전 질서 속에서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정치적인 환경의 대비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간에 좌우 이데올로기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나면 민족의 동질성 또는 가족의 동질성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리라는 안이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즉, 같은 피가 몸 속에 흐르고 있고 끈끈한 혈육의 정이 남아있는 한 남북이산 가족 사이에 이데올로기의 벽이 무너지고 남북의 가족이 합쳐지기만 하면 이산가족이 곧 하나가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또 그에 대해 준비해야하는 것은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 구도에 가려 깊숙이 파묻혀 있던 여러 가지 사회 또는 가족 내 갈등 요소들이 이산의 상봉과 결합을 계기로 얼마든지 돌출 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혈육의 정은 수많은 가족 구성 요소들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혈육의 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통곡과 눈물바다 속에서 가족이 하나된다는 감상적인 생각으로 이산가족의 상봉과 재결합을 접근해서는 또 다른 가족 불행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북한 파악 연구들이 지나치게 정치영역에 편중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 문화, 언어, 사상, 가족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산 후 달라진 가족의 모습을 이해하고 이산가족 상봉·재결합 후 사회사업의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한 가족 생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족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전체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북한 가족의 기능 양상을 분석해 보는 일이 향후 필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분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산가족이 상봉·결합할 때 상호 조절되고 이해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사업의 과업가 보다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확인되고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목적 자체로 보기보다는 가족 회복 또는 가족 정상화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이산가족의 상봉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적 개입 방안을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서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사회사업의 과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 선행 노력이 없었고 또 이러한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 발표는 남북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고 재결합을 이루거나 또는 재결합을 이루지 않은 채 가족의 회복 또는 가족의 정상화를 위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 사회복지계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산 가족 상봉의 현장에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부문을 찾아가려는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의 점진적 노력이 전 이산가족의 상봉과 통일된 한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 참고문헌

- 곽동현. (1999). "이산가족 재결합시의 가족법적 문제: 남북한 가족법과 관련하여", 경북대법학논고, 15, 1-25.
- 김명기. (1993). "남북 이산가족의 재결합 - 법적 의무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13, 167-176.
- 김선이. (1994). "분단국가의 인적 교류정책과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법적 문제의 소고", 성균관법학, 5, 209-252.
- 동아닷컴. (2000a). [8. 15상봉 그 이후] 북 가족 정치적 발언. 2000. 8. 18.
- 동아닷컴. (2000b). 「소설가 이호철의 방북소감」 첫 만남 눈물 안흘린 까닭은. 2000. 8. 20.
- 동아닷컴. (2000c). 깊어가는 상봉 후유증... 이산가족들 식음전폐. 2000. 9. 9.
- 동아닷컴. (2000d). [남으로 돌아온 방북단 소회] 너무나 짧았던 3박 4일. 2000. 8. 18.
- 동아닷컴. (2000e). 8.15 상봉 그 이후 남북언어 - 생활 이질화. 2000. 8. 20.
- 동아닷컴. (2000f). [이산상봉/50년만의 만남이 남긴 것] '북한 쇼크'. 2000. 8. 18.
- 동아닷컴. (2000g). [이산상봉] 북방문단 최필순씨 아내 사연 뒤늦게 공개. 2000. 8. 22.
- 동화연구소. (1998).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이산가족 자신들이 밝히는 속내: 동화연구소 긴급여론조사. 월간동화, 11(5), 26-36.
- 소재선. (1996).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제문제". 가족법연구, 10, 491-523.
- 신영호. (1994).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문제". 성신여대사회과학논총, 7, 29-46.
- 엄명용. (1999). "탈북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형 사례관리 모형의 제시와 그 실천". 한국사회복지학, 37, 271-306.
- 임순희. (1998). "남북한이산가족 상봉·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응방안". 98년도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2, 109-131,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통일부. (1999). "남북이산가족 관련 기본통계". 통일부 대변인실 보도참고자료. 1999. 6. 4.
- 통일부. (2000).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 해설자료, 2000. 3. 2.
- Laqueur, W. (1994). Family reunion. Commentray, 94(1), 43-46.